

남북한 문학번역에서 의성어 의태어 활용양상 비교 분석 논문에 대한 토론문 (동국대 김순영)

“북한의 문학번역”이라는 쉽게 만나기 어려운 주제를 다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연구자들이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각기 나름의 어려움에 맞닥뜨리겠지만, 특히나 선생님께서 다루고 계신 북한의 문학번역은 연구의 가장 기본 단계인 자료수집에서부터 수월치 않은 분야라 생각합니다. 연구를 진행하기까지 많은 수고로움과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러한 수고로움을 마다않고 이런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하신데 대해 존경을 표합니다.

미국소설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다룬 도해자 (2019)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문예이론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서 주체사실주의로 명칭상의 변화를 보이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고, 큰 틀에서 보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실주의가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외국문학을 평가하는 기준도 사실주의입니다.
분단 후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외국 문학 비평은 일관되게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사실주의 및 ‘진보적’ 낭만주의 계열, 그리고 당대 사회 현실을 풍자하거나 비판적으로 묘사한 작가 및 작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발표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소설은 인간의 성격과 사건에 대한 묘사의 문학이고, 번역에서도 생동감, 묘사의 섬세성을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 합니다 (진경일 2008).
이러한 묘사의 섬세성을 살리는 방안으로 의성어, 의태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현실에서와 같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묘사의 섬세성은 생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보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소설작품 창작에 쓰인 전체 문장의 16.9%~34.2%에 본딤말, 즉 의성어 의태어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의성어 의태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번역문학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의성어 의태어가 발달한 우리문학의 경우와 견주어도 그 비중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목적에서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의성어 의태어의 적극적 사용이 곧 번역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것이라 언급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고민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 김명수(117)에서 영조번역에서 영어포함어동사의 등가어선택원칙이라는 글

을 통해서 나타나듯, 북한의 문학번역 담론에서는 등가의 달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성어 의태어의 사용을 언급한 자료들에 의하면 의미분석, 성분분석을 어디까지 하여서 어떤 표현을 찾아내야 하는가를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오히려 번역자의 적극적 개입이라기 보다는 처방적 번역방법에 가깝게 세밀한 차원에서의 등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번역의 단위를 의미중심의 단락으로 규정하였다든가, 영어식 어휘에 기초한 번역이 아니라 풍부한 조선어 어휘에 기초한 번역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을 고려하였을 때, 이 또한 목표어 즉, 북학교유의 소설/문학 규범에 맞게 번역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하는 등가중심의 처방적 방식이며, 이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번역자가 개입할 공간 마련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미롭고 유익한 연구 발표 감사합니다.